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 이후 3번째 보고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근대한국유학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인물, 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근대 시기 문명개화를 주창한 일명 개혁적 유교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두 차례의 분석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도 함께 정리하였다.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으로 대변되는 인물로 이들은 주로 전통 유학 패러다임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들만이 한국 근대 유학은 아니다. 전통 성리학계에서도 이 시기 다양한 논의가 출현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가 심설논쟁(心說論爭) 부분이다.

심설논쟁은 이항로, 기정진, 이진상, 전우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상호 치열하게 토론한 논변이다. 이 논쟁은 한국 유학사에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논쟁은 한국 성리학의 고유 담론인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과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연속이자 종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는 한국 성리학의 핵심 주제와도 맞물린다. 사단칠정논쟁이 정(情)에 대한 논의이라면, 호락논쟁은 성(性)에 대한 논변이다. 그런데 이들을 통합 또는 총괄하는 것이 심(心)이므로 이 두 논의가 심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 것은 학문의 발전상 당연하다. 또 이는 심설논쟁이 사단칠정논쟁과 호락논쟁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 논쟁에는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근대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발견은 18세기 이후 동서양 철

학의 중요한 근대적 논제이다. 한국 성리학의 심설논쟁도 이 근대적 개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 시작은 전통 중화개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17세기 동아시아 패권국인 청의 등장 이후 한국에서는 중화(中和)관이 크게 요동쳤다. 현실의 중국(中)과 전통의 중국(和)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9세기에 들면서 서구의 청국침탈과 일제의 국권침탈을 거치면서 전통 유학자들은 서구 문명과 유학을 대립적으로 논하였다.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난 논리가 척사위정(斥邪衛正)이다. 한편 전통 유학자들은 개화를 통해 근대 문명을 수용하려는 정부와도 대립적이었다. 하지만 심설논쟁의 참여한 전통 유학자들이 서구식 문명에 의한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을 강조하여 개인의 주체성 확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심설논쟁은 주로 개별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사업에 선정되었다.(“심설논쟁 아카이브 구축”, 연구책임자 : 최영성) 이 연구 사업은 2022년까지 5년간 근대 심설논쟁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약 30편의 관련 학술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설논쟁은 물론, 근대 시기 한국 성리학의 특징과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중요한 학술활동으로는 간재학회의 학술대회들과 계명대 한국학연구원의 학술대회가 있다. 간재학회는 전라북도의 학술 지원 등을 받아 매년 전우와 문인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진상과 문인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명대 한국학연구원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 재전 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총 9편

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진상(李震相)은 전우와 더불어 심설논쟁의 핵심 사상가이자, 문인인 곽종석, 이승희, 김창숙 등 한국 성리학의 항일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근대 성리학을 규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몽(中國夢)"을 모토로 하여 전통 유학의 근대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 유학계는 한국 유학을 중국 유학의 아류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황이 왕수인의 학문 즉 양명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에는 이러한 비약이 더 심한데, 대표적인 것이 "박은식이 양계초를 통해 양명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만학계의 견해를 중심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국 유학의 학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중국학계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인물별 분석

이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인물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이지만, 2017년에는 이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김종복	백암 박은식의 발해사 인식과 그 서술 전거	한국사학보 54	고려사학회
사학	장재천	백암 박은식의 민족교육운동사 논고	한국사상과문화 87	한국사상문화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 –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박은식 관련 연구가 다소 있었고, 장지연 및 신채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대신 기존 연구가 적었던 근현대 유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등장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김새미오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문학	정시열	금계 이근원의 한시 일고	韓國思想과 文化 85	한국사상문화학회
사학	류시현	일제강점기 현상윤의 문명론과 조선 문화 연구	호남문화연구6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철학	김미영	중천 김충열의 『고려유학사』에 투영된 유학관	국학연구34	한국국학진흥원
철학	김윤경	정인보와 장병린의 주체론 비교	인문학연구 52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철학	유권종	중천 김충렬의 한국유학사관 연구	공자학32	한국공자학회
철학	정승안	일부 김항의 정역과 사회사상적 함의	한국학논집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신학	김신	근대담론으로서 유학자 이수정의 1885 마가복음 번역의 의미	신학과사회14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안달삼, 이근원, 이수정 등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근대 유학자들이다. 안달삼(1837~미상)은 제주 출신의 유학자로 그동안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 김새오미는 이 연구를 포함 총 2편의 안달삼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유학 및 한문학과 제주라는 지역학이 만나 다양한 파생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이근원(1840~1918)은 전주 출신의 화서문인으로 유인석의 의병활동을 지지했다. 정시열의 연구는 그의 도학시(道學詩)를 중심으로 그의 유학관을 고찰하였다. 최근 근대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근원 관련 연구도 심화 ·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수정(1842~1886)은 근대 중앙의 권력자였던 민영익과 교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시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시킨 공로로 1882년 수신사인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일본인 쓰다(律田仙)의 안내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는 한문성서에 토를 단 『현토한한신약전서』를 간행하고 이후 『신약마가전복음셔』를 번역하였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 수용자가 아니라, 전통 문화의 입장에서 서구 문명의 융합이라는 당대 과제를 수행한 지식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 유학과 기독교 간의 영향과 교섭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인보는 박은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국 근대의 양명학자이다. 김윤경은 정인보와 장병린을 비교하여 정인보 양명학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전통 유학의 복원을 넘어 현대 중국 사회에 이념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유학을 중국 유학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패권적 경향으로 변질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의 충돌지점은 이황과 박은식, 정인보 등 근대 양명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근대 한국 양명학자들이 강유위, 양계초, 장병린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적은 팩트에 의지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한국어 연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주로 대만의 한국유학 연구성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인 이러한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

국의 연구자들이다. 이런 연구 현실에서 김윤경의 연구는 근대 한국 유학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외에 주목할만 연구로는 이상은(1905~1976)과 김충렬(1931~2008)은 모두 현대 동양철학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현대 동양철학분야의 역사로 전통 학문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류승국(1934~2013), 이우성(1925~2017) 등 해방 이후 1~2세대 유교철학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이진상(1818~1886), 전우(1841~1922) 등 근대 성리학자들과 그 문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진상과 한주문인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오용원	幽居를 통해 본 李震相의 시세계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문학	이세동	膠宇 尹胄夏의 寒洲學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문학	전병철	紫東 李正模의 학문성향과 寒洲學說 수용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정병석	韓溪 李承熙의 寒洲學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권오영	后山 許愈의 학문이력과 寒洲學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김기주	弘窩 李斗勳의 철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김낙진	勿川 金鎭祜의 성리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추제협	면우 곽종석의 철학과 한주학의 비판적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진상과 문인들의 연구는 주로 영남권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도 대부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2017년 12

월 8일 개최한 학술대회(주제 :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 재전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에서 발표한 논문들이다. 다음은 전우 관련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유영봉	간재 전우가 남긴 철리시 연구	한문학보 37	우리한문학회
사학	서종태 변주승	艮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 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사학	이종록	田愚의 西學認識과 斥邪論	조선시대사학보 80	조선시대사학회
철학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철학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 성사심제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철학	임옥균	간재 전우의 문경에서의 강학활동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전우 연구는 주로 간재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재학회는 매년 전북도청에서 학술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연구자이 참가하는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기타 근대 성리학자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향배	경회 김영근의 한시에 투영된 위정척사 정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문학	이은혁	운재 윤제술의 교육과 정치사상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문학	최은주	蒼崖 許萬璞의 삶과 한시에 담긴 내면의식 고찰	남명학연구 5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사학	박걸순	鄭淳萬의 교육구국사상과 淸州 德新學校 설립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철학	임옥균	정재 남대년의 학문과 사상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기타	강기래 · 이해주 이현채 · 김희채 김동필 · 하성근	성재 유중교의 가평 옥계구곡 위치 추정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3	한국전통조경학회

그동안 근대시기 연구에서 한국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근대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와 전통 유학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영남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영남지방에서는 국책기관인 국학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의 일환으로 이황, 이진상 등 전통 유학자들과 그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문화정책으로 이어졌는데, 호남지방에서는 전우, 기정진 등과 문인들이, 충청지방에서는 송시열, 한원진 등과 문인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 강화군청과 시흥시는 정제두와 한국양명학에 대해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대회를 단체장의 홍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정부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중의 과도한 지원은 자칫 연구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근대 유학자들의 연구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과 연구의 객관성이 병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행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주제별 분석

근대 유학 연구의 전통적 주제는 근대성과 문명담론이었다. 2017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노대환	대한제국 말기(1904~1910) 『황성신문(皇城新聞)』의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54	이화사학연구소
사학	이황직	개신 유교 변동론의 사회이론화 가능성 연구	한국학논집 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이황직	유교에서 한학으로 – 1960년대 이후 한국 유교 정치운동의 쇠퇴 과정 연구 –	사회사상과문화 20-1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학	정다함	1945년 이후의 조선시대사 연구와 유교근대론 / 동아시아론에 대한 post-colonial / trans-national한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과 제언	코기토 8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사학	정립비	개항기 '支那' 명칭의 등장과 문화적 함의	한국사학보 69	고려사학회
철학	김윤경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곡학의 교섭	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철학	김현우	《황성신문》논설의 정량적 분석과 근대인식 추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철학	박정심	근대 유학담론에 대한 성찰과 문명다움[인(仁)]에 관한 시론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이미림	유교 공감과 소통의 경제학 – 아담스미스 도덕감정론과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문화 20-3	동양사회사상학회
철학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119	철학연구회

이 중 노대환, 정립비, 김윤경, 김현우, 박정심의 근대 시기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문명 인식에 대한 고찰이다. 이들 연구들은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명개화관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국가 정체성의 확보라는 특수성과 문명개화라

는 보편성 사이에서 고민한 당대 지식인들을 면밀히 다루었다.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선택은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결국 일본의 문명개화 논리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황직, 정다함, 이미림, 장은주의 연구는 근대성 관련 연구이다.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사학과 철학 분야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전통 유학 체제의 근대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는 근대이후 지속된 전통 유학가 전근대적이라는 평가를 극복하는 성과들이다. 본 보고서에는 그 중 이황직의 연구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최근 근대 유학의 새로운 주제는 교육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교육	전민호	개화기 서당교육의 전개	한국교육학연구 23-3	안암교육회
철학	한성구 지준호 임홍태 신창호	전통교육 내용의 통섭과 현대적 재구성	한국철학논집54	한국철학사연구회

근대 유학자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이지만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확장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인성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도덕성에 초점을 둔 전통 유학가 교육 분야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전통 교육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대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인성교육으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성구 등의 「전통교육 내용의 통섭과 현대적 재구성」에서 '주체성, 도덕성,

정치성을 현대적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296)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기타 주제별로 구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영호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과 그 의미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문학	홍인숙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문화	고희탁	유교를 둘러싼 개념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신아세아 23-2	신아시아연구소
철학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유지웅	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왜 심인가?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관한 재고	한국사상과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철학	이영자	근현대 충청유림의 유학정신과 위상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이영호의 연구는 한중일 및 대만에서 한국유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겠다. 홍인숙의 연구는 전통 질서하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이런 방향의 연구는 2000년대에 활발했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른바 "me to" 라는 페미니즘 운동과도 연결된 주제로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김윤경과 유지웅의 연구는 19세기 성리학의 문제의식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시기 주된 담론은 심설논쟁으로 양명학이나 명덕설 모두 심론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이영자의 연구는 유학을 지역학 차원에서 재해석한 성과이다. 이기동의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대한 정리이다. 이 연구 역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장에서는 아래 세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영호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과 그 의미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사학	이황직	개신 유교 변동론의 사회이론화 가능성 연구	한국학논집 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관한 재고	한국사상과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이영호는 중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최근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전통 유학을 현대 중국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학도 점차 연구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유학이 중요한 것은 학술 패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동안 한국유학은 전통 유학의 형식과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성균관, 향교, 서원 등 하드웨어는 팔일무, 복식, 각종 예식 등의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되었다. 학술적으로도 전통 성리학의 논의를 이어받아 크게 단절되지 않고 전수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전통 문화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유학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성균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각종 유학의 의식들을 수렴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중국에서 발표되는 연구 중에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논리 비약의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영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유학연구에 비하여,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연구자들에 의해 중국 유학의 입장에서 한국유학사상을 인식하고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유학을 중국유학의 일부 혹은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다. (중략) 장립문은 『이퇴계사상연구』에서 퇴계를 '조선의 주자'로 평가하면서, 주자학이 조선에 전파되고 발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여겼다. 그리고 퇴계학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주자학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중국 주자학의 연장선에서 퇴계학을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33) 후술하겠지만 이는 대만 학자들의 조선주자학 연구와 그 맥을 달리하는 결론이다.
(257~258)

이영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중화주의(혹은 세계 패권주의)와 학술의 결합인 것이다. 특히 중국 중심의 유학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바로 그 한 예가 현재 중국 저명대학의 유학프로젝트의 경우,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중국내 유학문헌의 정리와 국외 유학문헌을 정리하여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2014년에 결실을 맺어『儒藏(精華編) 100책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경학자료집성이 이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표점출간 되어 전세계에 중국유학의 이름으로 반포되게 되었다. 중국유학의 일원 내지 연장으로서 한국유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국정부의 문화정책과 어울려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261)

한국의 경학자료집성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행한 대규모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을 도용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 유학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유학 정책의 패권적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영호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유학에 대한 새롭고도 우수한 연구 성과의 도출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국어로의 번역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다방면에서의 연구 교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황직의 연구는 정인보의 양명학을 통해서 현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추론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그는 유학의 도덕 주체에서 민주주의의 개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 근대의 사상적 변화와 실제 역사를 통한 한국적 이론화는 도덕 주체로서의 개인을 정치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사상적 대응의 과정, 곧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사상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서 출발하게 된다. (179)

이황직은 이를 정인보의 유학과 연결시키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정인보의 '얼'은 유학 본래의 '천명의 신정론'을 발견하여 강화시킨 것으로서, '천지만물일체의 인'인 양지와 같은 것으로서 개개인의

> 마음에 내재하며, 마침내 홍익인간이라는 교의를 통해 민족사의 전개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정인보는 역사에 아로새겨진 '얼'을 추적하여 그 실제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인보는 '민족의 얼'을 개인을 초월한 엄숙한 실체로서 재정의하여, 민족 구성원 또는 유교인이 도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현실의 정법에 관여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 절대적 명령 체계로 발전시켰다. (200)

이 구절은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정인보의 '얼' 사상이 천명의 신정론 즉 의지적 천을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정인보의 '얼' 민족주의는 유학보다는 민족종교 등의 민족담론과 유사하다. '얼'은 단순히 의지적 천이 아닌 개인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얻고자 하는 것도 유교적 이상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정인보의 '얼'을 원시 유학의 천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는 양지를 '천지만물일체의 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양지는 분명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지가 천지만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도식은 양계초의 논리이다. 양계초는 양지를 통해 개인은 개인을 초월하여 만물일체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초월한 자아를 진아(眞我)라고 부른다. 이는 칸트철학의 양명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주체성은 결여되고 민족이나 사회로 종속되고 만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인보의 '얼'이 민족담론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로 이어지기보다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효시라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논리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전통 유교를 민주주의라는 현대 가치로 재구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긍정적이다.

이기동의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와 한국 유학 교육에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한 번 쯤 다루고 싶은 주제이다. 성균관의 성균이란 말은 "성인재지미취, 균풍속지부재"(成人材之未就, 均風俗之不齊)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의 '교육'과 의미가 유사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역사는 1398년부터 시작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기동은 이 역사는 국자감의 설립연도인 992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자감이 충선왕이 즉위시인 1308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했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균관의 역사가 신라의 국학이나 고구려의 태학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려 국자감의 설립시기인 992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은 이러한 역사의 단절에는 현승종 총장의 단언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에서 1398년을 설립 년도로 정한 연유는 치밀한 역사적 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1975년 개교기념식석상에서 당시 현승종 총장의 아래와 같은 식사를 통한 선언에 의한 것이었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견지에서 다수설에 左袒하고자 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럴진대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오늘로서 건학한 지 만 57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성균관대학교의 설립년도가 현승종 총장의 선언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설립년도를 1398년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반드시 재론되어야 한다. (186)

사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 문화인 유학은 근대화의 찬바람 속에서도 명맥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인도덕, 가족윤리, 경장사상 및 유학 예의의 존속 등은 우리 사회에서 유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중국의 과도한 유학열이 패권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역사의 정립은 한국 유학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16년 근대 한국 유학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도 한국 유학은 중국 유학의 패권적 확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 유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점차 확산되었다. 근대 한국 유학도 강유위, 양계초 등 중국 근현대 보수주의 유학자들과의 영향 관계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주로 이전의 대만에서 엄밀한 검증없이 발표된 양자간 관계가 최근 중국에서 인용되면서 중국에서는 근대 한국 유학이 강유위나 양계초의 아류처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 빈약한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근대 유학은 그동안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황성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이 시기 전통 유학자들과 문인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정진, 이진상, 전우 및 김평묵, 유중교, 곽종석, 이승희, 김창숙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연구 경향은 서울 중심의 개혁적 유교지식인에 한정되었던 연구 경계를 근대기 전반적인 사상 체계와 변화를 탐색하는 보다 타당한 연구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배경에는 지자체, 문중 등의 지원을 받는 학술 활동도 있다. 연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 업적을 치장하고 문중을 강조하는 연구 사업으로 변질하기 쉽다. 때문에 연구 기관 및 단체와 연구자들의 올바른 연구 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도 근대의 연속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유학의 변화와 지향을 현재 우리 사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신자본주의 속에서 점차 잃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전통 인문학 특히 유학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그런 점에서 근대 유학의 치열했던 경험은 현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